

훴의 철학 체계를 통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

이 수 환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기독교철학석사 졸업)(대1-2)

I. 서론

사람은 어떤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돈이나 황금, 석유 같은 물질이 될 수도 있다. 사람마다 믿는 대상과 믿게 된 경위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왜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믿는가? 그동안 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검증이 수도 없이 해왔다. 대표적으로 중세의 신존재 증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존재 증명은 인간이 믿는 대상인 신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누구도 왜 신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데카르트에 의해서 드디어 인간은 믿는 대상이 아닌 믿음의 주체인 자아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인간은 자신의 인식원리에 궁극증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6세기의 유럽은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으로 나뉘어 인식의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합리론은 선지식에서 경험론은 인간의 경험에 인식의 근거를 찾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합리론과 경험론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관심이 없다. 필자는 그 중에서 경험론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믿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데이비드 훴의 인식론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고자 할 것이다.

필자는 본 논고에서 기독교인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미리 확인하고 넘어갈 점은 필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성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다거나 반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초월적 영역이라고 보는 양극단의 관점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발생에 대해서 경험론적인 설명이 믿음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데이비드 훴의 철학 체계인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학자들은 훴을 무신론자 또는 회의주의자라는 극단적 꼬리표를 달고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기독교 세계에서 그 선입견은 더욱 거세다. 그러나 일반은총을 이해하는 개혁주의자 또는 화란에서 주창된 영역주권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필자가 하고자 하는 기독교철학적이고 기독교인식론적인 접근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이수환 2007).

데이비드 훴은 훴스, 로크, 버클리 이후에 영국의 경험론을 계승하고 완성시킨 사람이다. 훴 당대에 까지 유럽은 중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이상학적인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훴은 당시 세상을 새롭게 바꾸고 있던 과학적 이론을 철학에 적용하고자 했다. 따라서 훴의 철학은 체계적이며, 인식적 체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실용적이다. 물론 훴의 철학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다. 몽환적이거나 광신적인 철학을 경계했던 그는 인식의 한계를 경험에 묶어둠으로써 인간을 감각적 존재로 보게 만들었으며, 영적인 존재보다는 생물의 한 종으로 이해하게끔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훴이 보여줬던 인

식의 체계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용하다.

필자는 기독교 신앙이 인식론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확증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흄의 철학적 체계를 도입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선 흄의 인식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신앙 즉, 믿음이 감각경험에서 출발하여 인간에게 인식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흄이 설명하는 믿음과 종교적인 차원의 신앙이 어떻게 상호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흄의 철학 체계에서 주장하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어떻게 환원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 주제의 남은 과제를 생각해 보며 글을 마치고자한다.

II. 흄의 철학 체계에서의 신념

필자는 여기에서 흄이 주장하는 경험에서 출발하는 인식의 체계가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이는 기독교인의 신앙이 인식론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확증 된다는 필자의 주장을 설명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흄은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I 에서 인간의 오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흄은 실험적 추론 방법을 도덕적 주제들에 도입하기 위한 시도라는 부제를 붙였다. 흄은 자신의 철학을 비이성적이고 반철학적인 지식의 체계를 전복하여 올바른 철학의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 제 I 권은 관념들과 그것들의 기원, 합성, 연관, 추상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흄은 인간의 사고의 체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흄의 전체적인 인식의 체계를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흄은 가장 먼저 인간 정신의 지각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여 인상과 관념을 나눈다(Hume 1994). 그리고 인상은 관념에 앞서며 관념은 인간의 사고에서 전에 경험되었던 인상을 떠올리게 한다(Hume 1994: 28-30). 계속해서 흄은 제 I 권 제1부 제3절에서 기억의 관념과 상상력의 관념에 대해서 설명한다. 흄은 “우리가 첫째 방식으로 반복하는 직능을 기억이라고 하며, 둘째 방식으로 반복하는 직능을 상상력이라고 한다”(Hume 1994: 31)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상상력이 담당하는 주요한 기능은 관념들을 연합시킨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빨간색이라는 단순 관념과 삼각형이라는 관념을 연합하여 빨간색 삼각형을 떠올린다고 할 때, 두 관념의 연합을 일으키는 원인이 상상력이라는 것이다. 이 상상력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면, 흄이 제 I 권 제2부 제1절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매순간은 다른 어떤 순간과 독립적이며, 다른 어떤 순간보다 뒤이거나 앞이다. 따라서 시간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개별적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Hume 1994: 53)고 말한다. 이런 단일적인 성향은 공간에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흄에게 있어서 모든 사건은 단회적으로 단 한 번만 일어난다. 우리가 매년 사과를 먹을 때, 사과를 먹는 일로 묶인 하나의 사건은 사실 매년 반복적이라고 해도 모두 다른 사건인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은 모두 단회적이기 때문에 감각경험은 매번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모든 인식의 원리가 처음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을 통해서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통해서 얻

은 인상에 대한 관념을 떠올리고 그 관념들을 연합하는데 상상력이 필요하게 된다. 흄에게 있어서 신념이라는 개념은 상상력과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를 독립적 외부대상 대한 설명을 통해서 상상력과 신념의 관계를 살펴보자.

흄은 인식 주체의 외부에 독립적인 물체가 존재한다고 믿는 일상인들의 신념이 근본적으로 상상력에 근거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서 자연적 신념에 관한 흄의 적극적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흄의 철학의 자연주의적 해석과 연결된다. 우선 상상력이 물체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흄은 “모든 인상들은 내적이고 소멸하는 존재들이며 그렇게 현상하기 때문에, 인상들의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에 관한 견해도 그 인상들의 성질들과 상상력의 성질들이 통합하는 데서 발생한다”(Hume 1994: 205)고 말한다. 여기서 인상들의 성질들이란 ‘항상성’과 ‘정합성’을 말한다.

항상성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인식된 인상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 단절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단절 앞과 뒤의 인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흄은 다음과 같이 항상성의 예를 들고 있다.

지금 내 눈 아래 펼쳐진 산과 집 그리고 나무 등은 언제나 동일한 질서로 나에게 현상한다. 내가 눈을 감거나 돌림으로써 그것들을 보지 않을 때, 필자는 잠시 후 그것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다시 나에게 현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내가 그것을 보거나 지각하는 데 어떤 단절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Hume 1994: 206).

정합성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가 계속 변화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인상이 변한다고 해도 그 규칙성으로 인해서 시간적 단절에도 단절 사이에 있는 인상을 혼동하지 않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흄은 다음과 같이 정합성의 예를 들고 있다.

내가 방을 한 시간 비운 다음에 돌아왔을 때, 필자는 방을 떠나기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난롯불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방에 있거나 외출했거나, 또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간에, 필자는 다른 사례들에서 유사한 시간 동안 일어난 유사한 변화들을 보는 데 익숙하다. 그러므로 물체들의 변화에서 이 정합성은 그 물체들의 항상성과 마찬가지로 외부 존재들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이다(Hume 1994: 206).

즉, 방을 비운 사이에 난롯불이 줄어들었거나 꺼져있더라도 난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의 단절 뒤에 내가 접하게 될 인상을 어느 정도 예상하며 그 예상이 맞을 것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합성은 항상성과의 관계 속에서 다만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한다.

그렇다면 항상성과 상상력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은 앞서 살펴본 지속적이고 독립된 물체에 대한 신념과 연결하여 고찰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간혹 우리의 감각 경험이 중단되어 있음을 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인상의 항상성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물체는 없다. 다만 시간적 단절에도 불구하고 정합성에 따라 감각을 통해서 같은 인상을 얻는다고 상상한다. 여기에서 인간은 오류를 범한다. 즉, 항상성에

의해서 같은 물체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단절 이전과는 다르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적 단절 사이의 인상들이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우리가 아는 한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동일성이 아닌 유사성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흔히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다시 말해서 유사성을 동일성으로 착각한다. 그렇다면 상상력은 인간의 감각을 통한 인상들의 유사성을 동일성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물체의 존재가 있다고 가정한다.

흄에 따르면 동일성의 개념은 상상력의 허구에 의해 일어나는 모순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그는 “어떤 중단이나 변화가 발견됨이 없이 어느 시간이나 조망되는 단일한 대상”이 동일성의 개념을 준다고 본다(Hume 1994: 212).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상의 단일성(unity)이 아니면 다수성(plurality) 뿐이다. 흄에 따르면 동일성의 관념은 감각인상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허구에 의해 만들어진다.

상상력이 유사한 지각들의 관념을 따라 거침없이 옮겨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동일성이 그 유사한 지각들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지각들이 현상하는 단속적인 방식 때문에 우리는 그 지각들을 아주 유사하지만 여전히 일정한 간격 뒤에 출현하는 독립적인 것들로 간주한다(Hume 1994: 215).

이러한 모순된 현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여 갈등으로 몰아간다. 그리하여 상상력은 이러한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 존재를 가정하게 된다. 흄은 “이 모순에서 발생하는 당혹감은 지속적 존재라는 허구에 의해 지각들의 단속적인 현상들을 합일하는 성향을 낳는다”(Hume 1994: 215)라고 말한다.

일상인들은 물체의 연속적 존재를 가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존재를 실제로 믿는다. 신념은 단지 관념의 생생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제시된 인상들의 생생함이 유사하지만, 지각되지 않은 요소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중단된 지각들이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실제의 존재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이 갈등을 해소한다. 이러한 가정은 중단 이전의 지각들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힘과 생생함을 얻으며 결국 그것들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우리의 경향성에서 온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물체의 지속적이고 독립된 존재에 대한 신념의 기원이 설명된다(최희봉 1987: 106-109). 흄은 신념이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의 자연적 성향에서 왔다고 흄은 결론짓는다.

최희봉에 따르면 “흄에게 있어서 자연적 경향성이란 상상력 또는 본능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개념으로서 우리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는 근본 원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최희봉 2003: 21)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특징에 주목하여 스미스는 흄의 근본신념들을 ‘자연적 신념’이라고 명명하며, “이 자연적 신념에 관한 이론은 가장 본질적인 것 가운데 하나이며 아마도 흄의 철학에서 가장 특징적인 이론일 것”(Smith 1949: 86)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흄에게 신념은 인간 본성에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스트라우드(Barry Stroud)는 ‘자연적 신념’의 특성을 ‘회피불가능성’이라고 부른다. 스트라우드는 흄의 회피불가능성에 대해서 흄 신념의 ‘한 가

지 중요한 귀결'을 강조하면서 '신념의 회피불가능성'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관찰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신념은, 자연에서의 다른 현상들처럼, 완전히 자연적으로 생겨난다. 그것은 우리 경험에서의 반복의 결과로서 '습관'에 의해 생겨난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믿기로 결정짓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믿음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Stroud 1977: 76)

스트라우드의 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은 의미가 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런 신념을 믿는데 있어서 취사선택을 할 수 없고 다만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념의 자연적 특성 때문에 스미스는 흄을 자연적 신념을 주장한 자연주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흄의 철학을 탐구하는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흄을 자연주의자로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탐구자 중의 일부는 현대의 자연주의적 입장을 과거로 가지고가서 흄에게 덧칠하고 있다. 손자 옷이 증조부의 몸에 대충 맞는다고 해서 그 옷을 증조부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말일 뿐이다.

최희봉은 스미스가 주장했던 흄의 철학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흄을 자연주의자라고 부를 때 그 의미를 정확히 규정하거나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으며, 흄 연구자들마다 그 자연주의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 현재로서 필자는 흄의 자연주의를 규정하는 가장 안전한 개념으로 '인간본성'을 꼽겠다. 즉 흄의 자연주의란 바로 '인간 본성주의'(human nature-ism)를 말한다고 하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최희봉 2004: 146).

필자는 최희봉의 의견에 동의한다. 흄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료들만을 통해서 탐구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습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되는 관념들은 관념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결합된다. 그리고 그 관념들은 지각 대상의 지속성과 독립성을 인간 인식의 직능에 직접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상력을 통해서 그 허구성은 채워진다. 또한 사람들은 그 허구성을 본성적인 믿음에 의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흄은 회의주의를 통해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 빈자리에 자연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근본적인 신념을 제시했다. 요컨대 흄의 자연주의는 그의 인식론 체계에서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든 인식의 원리가 근본 기능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흄이 이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흄은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인간의 인식 원리를 발견했을 때,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의 섭리를 기억했어야 한다. 물론, 흄이 자신의 철학적 체계에 매우 충실한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삶을 살았기에 이런 평가는 아쉬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없지만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흄의 철학 체계에서 신념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다. 신념은 인식의 핵심원리이다. 모든 사건이 경험적으로 단회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전의 사건과 지금의 사건을 연

결하여 인식할 때, 그와 관념의 유사성을 통해서 지금의 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관념으로 받아드린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저장된 관념을 기억하며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흄이 말하는 신념을 어떤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각 개인에게 있어서 모든 경험은 주관적이다. 그리고 그 주관성 속에서 신념은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간다. 일 년 전에 먹은 사과라는 대상에 대한 관념이 올 해 눈앞에 있는 사과라는 대상에 적용되어야 인식의 일관성을 가지고 이것이 사과일까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게 된다. 상상력을 통해서 관념을 연합시키고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작년에 먹은 사과라는 관념이 지금의 사과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신념은 확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흄이 주장한 신념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III. 신념과 신앙

필자는 앞서 흄이 주장했던 인간의 인식기능 중에서 신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흄에 따르면 인식기능은 경험에서 출발하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상력을 통해서 관념의 연합을 일으키고 이 관념이 신념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적용 될 때, 그 원리에 따라서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관념을 연합시키고 삶에 적용하는데 신념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인간은 관념에 대한 신념 즉, 믿음이 있기에 사고를 할 수 있다.

흄은 이와 같은 자신의 철학은 종교적 원리를 설명하는데 도입한다. 이는 그의 저서 『종교의 자연사』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원리를 종교분석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흄이 종교의 발생에 대해서 자신의 철학을 어떤 방법으로 전개해 나가는지 살펴보고 이를 종교적인 믿음과 비교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자연사』를 통해서 흄이 종교를 이루는 인간본성의 요소는 믿음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를 무신론자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 변호할 것이다.

흄은 『자연사』에서 종교를 크게 다신교와 유일신교로 나누고 주제별로 접근해 들어간다. 그러나 흄은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종교관을 계속해서 투영시킨다. 우선 『자연사』를 집필한 흄의 의도를 서문을 통하여 알아보자. 흄은 『자연사』의 서문을 통해서 종교연구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시한다. 첫째는 이성과 관련된 종교의 토대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성과 종교의 토대가 최소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흄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자연의 전 체계는 지성적인 창조자를 드러내 보이며, 진지하게 생각하는 합리적인 탐구자라면 한 순간도 참된 유일신론과 종교의 일차적 원리에 관한 그의 믿음을 의심해 볼 수가 없다.”(Hume 2002: 43) 이 같은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이성과 종교의 토대에 관한 흄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우선 흄이 말하는 이성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흄은 지성적인 창조자, 즉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연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합리적인 탐구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이성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자연의 전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추론해낸다. 동물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바람은 왜 부는지, 천궁의 운행과 같은 신비한 현상을 이성적으로 고찰하여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도출해낸다. 추론 능력으로서 이성은 흄의 철학저서인 『논고』 I 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저술의 부제는 ‘실험적 추론 방법을 도덕적 주제들에 도입하기 위한 시도’로서 그의 철학체계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추론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자연과학의 분야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에서도 그 성과를 도출해 내고자 했다. 이러한 흄의 논의는 그가 경험주의자라고 해서 이성을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흄의 경험론은 이성적인 추론능력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추론능력으로서의 이성능력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종교의 토대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종교는 인간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상위의 어떤 존재를 숭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종교적 행위 두 종류를 종교의 토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상정해보자.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존재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존재해야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행위인 종교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부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종교를 가지고 누군가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양분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종교의 토대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추론 능력으로서의 이성 과 관계가 깊다.

여기서 언급하는 종교적 행위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수반한 활동을 의미한다. 믿음이라는 관념은 종교를 더욱 공고히 해준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어떤 종교든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의문시 하지 않고 그것이 실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더욱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흄족한 찬미와 경배를 할 수 있는가이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인간이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또한 인간을 초월하는 그 존재를 숭배하는 것을 거리낌 없도록 해준다. 실로 믿음이 없다면 종교는 성립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흄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흄의 철학에서 감각인상으로 환원 불가능한 관념은 허구이다. 그렇게 본다면 흄에게 감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관념은 허구이다. 그렇다면 종교의 토대로서 감각인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흄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정적이다. 이는 분명히 흄이 말하는 철학의 원리 따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 관점에 따르면 종교자체가 허구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흄이 믿음을 이성능력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다른 하나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흄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었는가?

흄도 자신의 철학원리에 위배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흄은 “그러나 인간 본성과 연관된 종교의 기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보이지 않는 지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장소와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인류에게 매우 일반적으로 퍼져있다”(Hume 2002: 43-44)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성과 종교의 토대를 연결하여 생각해보려는 흄의 발상은 독특한 것이다. 즉 인간은 추

론 능력으로서 이성을 통하여 자연을 관조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적인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흠이 어떤 존재의 접근에 있어서 이성과 믿음을 통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흠은 종교의 문제 있어서 이성과 믿음의 연관성에 관심을 가진 듯하다.

이와 같은 흠의 사고를 통해 볼 때, 그를 무신론자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흠은 지성적인 창조주를 인정하며, 그 창조주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성이라는 특징은 인격성이라는 특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조주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흠은 자연의 전 체계를 이성적으로 접근할 때 지성적인 창조자를 추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흠은 지성적인 창조자에 대한 믿음은 의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즉, 흠은 이성적인 접근과 믿음을 연결하고 있다. 필자는 이것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논리적 타당성을 넘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논고』 I 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성의 추론 능력으로서 상상력으로 표현되며, 인간은 경험에 바탕을 둔 추론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추론한대로 일이 진행되리라고 믿는다고 설명한다.

흠이 살았던 당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과 더불어 추론에 근거하는 사변적인 합리론보다 실증적이고 검증 가능한 경험주의가 우위에 서 있었다. 이성적인 접근의 한계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흠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경험적 검증이 되지 않더라도 이성적 접근의 합리성을 옹호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흠은 자신의 철학을 통해서 경험주의적 필연성을 무너트려야 했다. 필자는 이것이 흠을 극단적 회의주의자로 평가받게 하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두 번째 문제제기에서도 나타난다.

흠은 인간 본성과 관련된 종교의 기원에 대한 문제가 종교연구에 관한 두 번째 문제라고 말한다. 앞서 우리는 흠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믿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았다. 인간이 종교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는 두 번째 문제에서 흠이 종교의 기원을 인간 본성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흠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인 믿음을 통해서 종교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인간 본성은 인간이라는 종이려면 반드시 지니고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종교가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그러나 그 종교가 지역적 특성, 인종적인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흠의 주장의 일관성을 파괴했다, 모두가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 신 존재에 대한 믿음은 통일된 종교를 발생시키지 못했는가?

『자연사』의 서문에서 흠은 지성적인 신에 대한 믿음은 모든 장소와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인류에게 매우 일반적이지만 예외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두 사람 또는 두 국가 간에도 동일한 종교적 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흠은 “신에 대한 개념은 자기애, 이성간의 애정, 자

녀에 대한 사랑, 감사, 원한 등과 같은 원초적인 본능이나 자연에 대한 일차적인 인상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닌 것 같다”(Hume 2002: 44)라고 말한다. 즉, 신에 대한 믿음과 신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구분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신을 믿는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자신이 믿는 신의 특성은 모두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 존재의 보편성은 확보되지만 신의 본성에 대한 보편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훨은 지성적 신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므로 기본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여기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했지만 훨의 인식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감각 경험을 통한 인상이 없이는 관념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인데, 신이라는 관념은 그에 상응하는 인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런 면에서 훨이 자신의 의견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훨은 지성적인 창조주, 즉 신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인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믿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문제는 그것뿐 만이 아니다. 훨이 신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 즉, 신 그 자체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신에 대한 관념을 믿는 것인가? 혹은 신 그 자체와 신에 대한 관념은 일치 하는가? 이 주제들은 후일에 깊이 연구할 주제로 남기고자 한다.

훨은 사람들 또는 국가 간의 종교적 정서는 같지 않다고 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한 예로 동양과 서양은 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타나는 관념들이 거의 비슷하다. 그 특징들은 초월적, 무한한, 전능한 이라는 수식어로 교류가능하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종교적 정서는 매우 다르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을 포함한 세계에 대한 섭리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양에서 신의 전능함이란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훨은 이러한 종교적 정서의 차이점 때문에 그 보다 더 원리적인 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신에 대한 믿음의 원리이다. “최초로 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원리들은 무엇이고, 또한 그러한 원리가 작용하게 된 우연한 요소와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Hume 2002: 44)이 자신의 연구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훨은 신을 믿는 인간의 행위인 종교를 부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의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다른 신학이나 철학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인다. 훨은 종교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인간에게 종교가 있었음을 먼저 밝히고, 그 종교 행위란 결국 신을 섬기는 인간의 행위로써 그러한 믿음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존 철학체계에서 신의 존재를 오로지 형이상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밝히려고 했다면 훨은 인간이 역사적으로 보이는 본성으로서의 믿음을 통해서 인간이 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탐구 한다. 훨의 철학 체계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이미 종교를 가지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신의 존재나 감각 인상으로 경험되지 않는 신의 속성을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논증만 하려고하는 행위의 비합리성을 비판했다.

훨이 종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리로서 인간 본성에 따른 믿음을 주장한다. 이 믿음은 훨이 『논고』 I 에서 상상력을 통한 인식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믿음이라는 본성적 직능과 일맥상통한다. 즉, 훨의 철학 원리는 일관적이다. 필자는 훨의 믿음에 대한 개념이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본성적인 믿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그

리고 인간의 행위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행위만이 흄의 관심사이다. 흄에게 본성적인 믿음이 왜 존재하며,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물음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각인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즉,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흄은 종교의 토대가 이성에 관계된다고 보았고, 종교의 기원은 인간 본성에 관계된다고 보았다. 필자는 이것을 철저한 흄의 철학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흄은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와 신의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사고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그는 절대적인 유신론자였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흄은 종교의 토대로서 신에 대한 이성의 항해가 언제나 경험주의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신론은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검증하기를 원하는 경험주의 앞에서 무너졌다. 여기서 당대의 신학자들과 흄의 태도가 구별된다. 신학자들은 인간과 신의 간극을 오로지 강요된 또는 폭력적인 믿음으로만 메우려고 했다. 그러나 흄은 인간과 신의 간극을 합리적인 인간본성의 분석을 통해서 설명했다. 즉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하기 보다는 이미 그 신의 존재를 통해서 인간이 믿음으로 존재하는 종교를 통해서 접근했던 것이다. 흄에게 지성적인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설명, 즉 검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믿음은 인간의 본성이다.

요컨대, 흄은 종교의 기원을 통해서 절대적인 존재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결론은 앞서 신념에 대한 자연주의적 인식의 원리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흄이 신념을 인식론에서는 인식의 과정의 한 요소로써 설명하고, 종교적 믿음으로써는 신념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흄의 철학 체계에서의 신념을 기독교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IV. 기독교 신앙

필자는 앞서 흄의 인식론이 종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인간을 경험을 통해서 인상을 얻고 이는 다시 관념이 되어 지식으로 축적된다. 그리고 기억을 통해서 그와 유사한 인상을 받을 경우 자연스럽게 과거의 관념과 현재의 관념을 연결하여 사고한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 인상에서 얻은 관념과 현재 인상에서 얻은 관념이 같다는 신념을 통해서 확증된다. 그리고 이 신념은 이성처럼 본래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인식의 기능이다.

필자는 개혁주의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이와 같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개혁주의 신학이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지성적 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이신칭의와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발생하고 진행되는 성화의 삶이 성령의 도움심이라는 신학적인 설명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철학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가 기독교적인 믿음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신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감각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감각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인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념이 된다. 그리고 많은 관념들은 상황에 따라 서로 연합하게 되는데, 이를 관념 연합의 원리라고 한다. 관념연합은 기억에 따라 상상력을 통해서 그와 비슷하

거나 동일한 인상이 들어왔을 때 언제든 발생한다. 그리고 연합된 관념은 이 관념을 생성 시킨 경험보다 앞선 경험에서 얻은 인상과 같다는 신념을 제공한다. 필자는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이 원리에 입각하여 몇 가지 사건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과 관계 된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감각경험을 통해서 목격했다. 따라서 그들의 신인식(神認識)은 경험에서 출발한다. 경험에서 출발하는 신인식의 예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음성이라는 감각경험을 통해서 처음 만났다. 창12:1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아브라함은 그 목소리에 따라서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창12:7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앞에서 나타나셨다. NIV는 나타났다는 단어를 ‘appear’로 표현하고 있다. 말 그대로를 놓고 보았을 때, 이번에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후로도 창13:14; 15장 등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감각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 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계속해서 확증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히 11:8) 라고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간 것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쉽게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두려웠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감각경험을 통해서 그의 신념을 강화시켰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셨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행동들은 모두 여호와의 경험을 경험하여 일어난 일들이다. 흠의 표현대로 감각인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관념인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언급함에 있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감각경험들은 그의 신념을 강화시켰다.

이와 같은 원리는 신약시대에서도 적용 할 수 있다. 흠이 말하는 신념은 근본적 인식 능력으로써 확실성을 더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한 증인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그것들을 믿는다. 흠이 볼 때 그의 철학 체계에서는 인상으로 환원 불가능한 관념은 쓸모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는 또한 신념을 근본적인 인식의 직능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필자는 앞선 인상을 통해서 기억된 관념과 그 후에 일어난 경험을 통한 인상의 비교는 경험이 먼저 발생한 후에 관념에 대한 신념을 도입함으로써 인식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관념들이 생겨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앞선 경험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성경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어떤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고 나서 살면서 말

씀의 그 내용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게 된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겪는 경험과 결부되어 기억이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축적된 기억은 살아가면서 그와 부합하는 경험을 얻게 되고 이것을 신념을 통해서 성경말씀과 동일한 일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성경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된다. 필자는 감각인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관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흠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감각경험이 없이 기억된 관념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먼저 관념으로 인식하고 후에 경험으로 입증하며 여기에서 신념은 감각경험 없던 관념이 후에 발생한 경험과 일치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후에 체험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성경을 읽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관념에 대해서 신념을 일으키며 연합되는 감각 인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누구나 이해가 될 수는 없는 책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1권 제7장에서 성경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성경은 그 절대적인 권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Calvin 1559: 171-183).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읽고 감각 인상 없는 관념으로 기억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 관념을 기억으로 떠올리게 하고 신념을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어떤 감각 인상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신념을 통해서 말씀이 기독교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증거 되고 입증되는 것이다. 물론 이 성령의 역사는 경험적으로 원인으로써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을 대하는 사람마다 또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사람마다 읽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벌어지고 그 차이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필자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V. 결론

필자는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이 인식론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입증 된다는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흠의 철학 체계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설명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인상을 얻고 이는 다시 관념이 되어 지식으로 축적된다. 그리고 기억을 통해서 그와 유사한 인상을 받을 경우 자연스럽게 과거의 관념과 현재의 관념을 연결하여 사고한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 인상에서 얻은 관념과 현재 인상에서 얻은 관념이 같다는 신념을 통해서 입증된다. 그리고 이 신념은 본래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인식의 기능이다.

그런데 이 신념이 기독교 신앙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반대로 인식됨을 보았다. 즉, 선행 되는 관념이 있고 이를 통해서 후에 그와 비슷한 관념들이 발생하면 두 관념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신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음으로 경험 인상으로 환원 할 수 없는 관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살아 갈 때, 삶 속에서 경험되는 체험으로 말씀을 통해 가지게 된 관념이 생생한 인상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흠이 말한 인식의 순서와 같지만 인식에 있어서 신념의 개입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필자는 흠 철학에서 신념의 역할과 원리는 기독교 신앙을 확

증해 주는 원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연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계시하신 말씀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탐구이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다분히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서두에 밝힌바와 같이 이를 어떤 신학 체계나 학문적 진리로 주장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 제시했음을 밝히며 졸고를 마치는 바이다.

참고문헌

- Calvin, John (1559).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고영민 옮김(2006). 『기독교강요』 I. 서울: 기독교문사.
- Hume, David (1739). *A Treatise of Human Nature*. 이준호 옮김(1994).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I. 서울: 서광사.
- _____ (1759). 『종교의 자연사』. 이태하 옮김(2002). 서울: 아카넷.
- Smith, Norman Kemp(1949). *The Philosophy of David Hume*. London: Macmillan.
- Stroud, Barry (1977). *Hum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이수환 (2007). “흠의 철학에 대한 새로운 평가”.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 최희봉 (2004). “흠의 철학과 근대 과학: 과학의 확장과 그 인식론적 기초”. 『범한철학』 34. 125-50.
- _____ (2003). “흠의 회의와 확신: 지식의 정당화 문제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26. 5-29.
- _____ (1987). “Hume의 회의주의와 자연주의”. 『철학연구』 11. 91-112.